

2. 송 악 면

(16) 강 당 골

송악면 강당리에는 강당사라는 절이 있다. 이 절은 원래 서원이었다고 한다. 이 서원에서 유생들이 밤낮없이 글읽는 소리가 이 골짜기를 퍼져 흘렀으며 이로 인해 강당골이라는 명칭이 생겼다고 한다. 그러나 대원군이 정권을 잡았을 당시 서원을 철폐했던 이렇 있다. 그 때 나라에서 보낸 군졸들이 강당리에 있는 서원을 철폐하려고 폐했던 일이 있다. 그 때 나라에서 보낸 군졸드렁 강당리에 있는 서원을 철폐하려고 내려올 때 서원에 있던 유생들이 광덕사에 있는 부처님을 모셔다 놓고 머리를 깎은 다음 목탁을 두드리며 임시직이나마 스님을 흉내를 낸 것이다. 군졸들은 모두 돌아가고 난 다음에도 서원은 되돌아오지 않고 그냥 절로 정착하여 현재 강당골에 있는 강당사가 되었다고 한다. 강당사 부근에는 노송과 맑은 시냇물이 흘러 경치 좋기로 유명하며 많은 관광객들이 여름이 되면 항상 초만원에 이르고 있다. 요즘은 절보다 부근의 골짜기 경치가 좋아 유생들의 글읽은 소리 못지않게 경치의 아름다움이 멀리멀리 울려 퍼지고 있다.

[17] 도 독 골

송악면 평촌리 하쟁이라는 마을 위에 큰 산이 있는데 그 산꼭대기에 커다란 바위가 아랫마을을 내려다 보고 있고 그 바위 밑으로 큰 골이 있다. 이 골을 이곳에서는 도독골이라 불러 내려오고 있다. 이 도독골은 깊고 긴 골로서 양쪽에는 큰 절벽이요. 바위와 나무가 울창해서 낮에도 캄캄하고 무서운 마음이 들어 사람들이 들어가기 싫어한다. 그런데 그 골은 한창 올라가면 중터겅 넓고 편편한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도독들이 소를 훔쳐다 잡아먹고 팔기도 하며 또한 도독들이 모여서 남의 것을 훔칠 상의도 하는 곳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옛날에 흉년이 들면 도독들이 이곳에서 쌀이며 옷이며 훔쳐다가 숨겨두고 살았으며 이 근동의 소는 전부 도독을 맞았어도 소의 거처를 찾지 못할 정도로 도독들이 생활하기가 안성맞춤의 곳이었다 한다. 6·25동란 때에도 마을 사람들이 인민군을 피해서 이곳에 소를 끌고 와서 숨어살 정도로 피난처이기도 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곳을 도독골이라고 불러오고 있다. 도독골! 과히 아름다운 이름은 아니다. 때도 변했으니 피난골도 좋겠지만 그보다 차라리 신선골로 바뀌었으면 어떨지?

[18] 베 틀 바 위

송악면 유곡리 1구 봉곡사에서 뒷산으로 1.5km정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베틀 형태의 바위가 있다. 이 바위에 대한 전설을 이야기 하자면 큰 전단이 있었던 그 당시 이 마을에는 극히 초라한 아낙네가 베를 짜고 있었으니 그 원인인즉 다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남편을 전쟁에 내보내고 그나마 어려운 살림을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아낙네의 고역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래도 오직 한가닥 남편과의 재회를 믿으며 궁색한 살림을 꾸려나갔으니 이렇게 횡수를 더하는 동안 전쟁의 열도 점점 식어 갔다.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는 여인의 애담은 여러해를 거듭했다. 이렇게 세월이 흐를수록 아낙네의 희망은 한꺼풀씩 거져 갔으며 이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가름할 수 없는 지경에도 아낙네는 남편의 생조만을 믿으며 온 정성을 다해 불공까지 드렸다. 하지만 세월은 아낙네의 머리를 백발로 덮었으며 이 풀수 없는 한을 베틀에 담아져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바위로 변했다. 이 바위가 베틀과 흡사해 베틀 바위라 칭하는 사람도 있고 그 정기를 받아 그 주위의 마을명이 베틀 조각품의 이름이 되었으니 이 아낙네의 모든 정성과 남편에 대한 만날 수 없는 한의 표상이라고 전해 내려 온다. 베틀에 한을 풀어 세월을 보낸던 한 여인의 인종의 미는 예나 지금이나 아름다운 수를 놓으며 짠 한쪽의 비단이라고나 할까?

[19] 봉곡사 부처님

송악면 유곡리 울창한 숲속에 자리잡고 있는 이 절은 다음과 같은 얘기가 전해오고 있다. 6·25때 부상당한 군인 2명이 봉곡사에 와서 쓰러졌다. 쓰러진 군인을 스님께 해서 지하 법당에 숨겨 치료를 했다. 그런데 괴뢰군이 봉곡사에 닥쳤다. 들이닥친 괴뢰군 두명은 군인과 스님을 모두 끌어내어 법당 안에서 무지한 고문을 했다. 그러나 괴뢰군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자 화가 난 괴뢰군 한명이 총을 쏘았다. 날아간 총알은 빗나가 부처님 몸에 맞았다. 그리고 나서 다시 튕겨 괴뢰군 가슴을 뚫었다. 총을 맞고 쓰러진 괴뢰군을 보자 다른 괴뢰군이 화가 나서 또 총을 쏘았다. 그 날아간 총알도 먼저 총알과 마찬가지로 부처님 몸에 맞고 다시 튕겨 괴뢰군 가슴을 뚫었다. 이렇게 해서 괴뢰군은 죽고 군인은 치료를 받고 완쾌되었다. 날아갔던 총알이 다시 날아온 것은 옳게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여기신 대지대비하신 부처님의 힘이 아닐는지!

[20] 역 말

송악면 역촌리 1구에 역말이라는 동네가 있다. 우리 마을에서 약 20분 정도 들어가면 그곳에 도착한다. 이 마을은 역말과 송악이라는 두가지 이름을 가졌다. 그곳에 송곡 국민학교가 있어서 이들은 6년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걸어 다녔다. 우리뿐 아니라 모든 아이들도 그 동네를 송악이라고 부르기도는 역말이라는 말이 송악이라는 말보다는 더 많이 사용되었다. 역말이라는 말이 송악이라는 말보다 더 친근감이 가서였는지도 모른다. 6년동안 이 마을을 오가면서 철부자였던 우리는 요새 그 마을 이름이 역말인지 의문심을 가지지 못했다. 역말!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간 우리는 그 마을을 송악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역말이라는 말은 어린이들이 많이 쓰고 송악이라는 말은 어른들이 주로 쓰기 때문에 우리들도 어른 흉내를 내고 싶었던게다 난 문득 지금까지 아무런 의심없이 불러오던 것에 대하여 자그마한 의혹이 생기기 시작했다. 왜 한 마을인데 두가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을까? 하고 말이다. 그래서 아버지께 여쭙 보았다. 아버지는 자세히 말씀해 주셨다. 역말은 조선시대 관리들이 공무로 오갈적에도 하룻밤 묵어가거나 지친말을 바꿔 타고 가는 곳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옛날 그 터에는 말들이 즐지어서 있고 군데군데 여관도 많았다고 한다. 말드리 준비하게 해서 있던 곳이 시내버스 정류장이 되어버린 지금은 말들의 자취는 찾아볼 수 없고 그 대신 네모난 시내버스가 동그라니 들어서 있다. 또 옛날 여인숙이었던 곳에는 학교 앞 문방구나 구멍가게로 바뀌었고 때로는 술집으로 바뀐곳도 있다. 말대신 버스요, 여인숙 대신 술집이다. 변해도 많이 변했다. 세상은 변하는데 왜 나는옛것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일까? 아!

말들이 보고 싶다. 옛날의 여인숙이 보고 싶다.

[21] 오형제 고개

송악면 강장리에서 예산군 대술면으로 넘어가는 고개 이 산에 고개 다섯이 있어 오형제 고개라 한다. 우선 전설이라기보다 이 산에 얽힌 이야기부터 하려 한다. 두 고개는 예산쪽에 있고 가운데 고개는 가장 높다. 이 산은 옛날 도둑이 많기로 유명하여 온양 장날밤에 살인·강도 사건이 일어났는데 한 사람은 온양쪽 첫 고개에서 또 한사람은 예산쪽 첫 고개에서 모두 칼을 맞아 죽고 두 사람은 가운데인 이 고개에서 아무 상처없이 죽고 다만 술병과 돈 꾸러미만 가운데 놓여 있으므로 온양 원모는 피의자로 예산쪽 첫 고개 밑에 술막에 살면서 혼자 술장사를 하는 문첩지를 유일한 혐의자로 잡았으나 그 위인이 선량한 데다가 일체 부인함으로 미결사거닝 되어 인근읍은 물론 국내 관장들을 괴롭게 하였는데 마침 문첩지의 집에서 살던 단양사는 김도령이란 사람이 연구 끝에 해결됐다. 세 도둑이 온양장에서 돈가진 양민 한사람을 데리고 오다가 온양 첫 고개에서 한사람을 죽이고 그 돈을 빼앗은 후 세놈이 동행하여 이 고개에서 한사람을 시켜 새 술막에 가서 술을 사 가지고 오게한 후 두놈이 합하여 술을 사오는 놈을 예산 첫고개에서 죽이고 그 술을 마시었는데 그 술인즉 술사러 간놈이 돈 욕심이 나서 술에다 독약을 탄 것이라 비로서 욕사가 풀리었다 한다. 또 이런 이야기도 전한다. 어느 비는 날 저녁에 제삿날이어서 급히 장을 보고 오는데 비를 만났다. 그래서 그는 이리저리 헤메다가 불빛을 발견하였다. "옳지 잘됐구나! 저기 저집에서 자밋 비르 피해가야지"하고 그 집으로 갔는데 다행이도 주막이었다. 여러 사람들은 방에 앉아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런데 한 젊은이는 걱정이 태산같은 표정을 하고있었다. "이것을 집에 갔다줘야 할텐데"하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주모가 술을 갔다 주었다. 이 젊은이는 술기운이 들자 짐을 꾸려가지고 주막을 나왔다. 산속을 혼자서 걸어가는데 앞에서 커다란 물체가 나타나자 젊은이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 주막에서 이야기 꽃을 피우던 사람들이 짐을 챙겨들고 주막집을 나왔다. 산속을 한참 걷다 보니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사람을 흔들어 깨우려고 애를 썼지만 되지 않아서 옆에 있는 웅덩이의 물을 끼얹어 주었더니 그 젊은이는 자기가 언제 기절했느냐는 식으로 일어나 걸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사람들에게 기절한 이유를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다. 이는 제삿날에 술을 마시고 돌아가는 그의 정성탕이 아니었을까? 지금도 그 모형제 고개가 있는데 혼자서 그 고개를 넘어갈려고하면 저절로 가슴이 오싹해 진다고 한다.

[22] 외 암 리

옛부터 이 동네에는 목가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다가 다시 강씨들이 살아오고 있다. 단종 때 이씨는 13대조인 이 성관이라는 학자가 나라를 혼란하고 세상이 어지러워 벼슬을 내놓고 바로 이 동네에 내려와서 살게 되었다. 간신들은 이 성관을 살려두면 훗날 후한이 있다며 사약을 내릴 것을 주장했으나 세조는 이 성관이 그만이 알고 있는 120가지의 풍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죽이는 그 120가지의 풍도가 전해지지 않게 되므로 죽이지 못했다. 그래서 그의 자손들이 이곳에서 대를 이어 살아오는데 이 동네는 부작로 수문난 강씨가 영암덕에서 살고 있었다. 강씨가 하루는 꿈을 꾸는데 백발노인이 나타나 "너의 대나무 집과 논을 이씨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물려 주어라"하면서 사라졌다. 강씨는 깜짝놀라 잠을 깨었으나 꿈같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까지 피땀흘려 모아온 전 재산을 그리습게 물려 주기란 여간 큰 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데 그날 밤 또 그 노인이 나타나 다시 한번 경고를 주었지만 강씨는 자기 재산을 포기할 수 없었다. 사흘째 되던 날 그 노인이 나타나 노발대발하면서 "만약 네가 이씨에게 재산을 넘겨주지 않으면 너의 집안은 대를 두고 화를 입게 되리라"하면서 호령을 하곤 사라졌다. 그때서야 강씨는 이것은 모두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는 자기 재산을 물려줄 이씨성을 가진 사람을 찾았다. 마침 이성관의 자손이 이 간을 발견했다. 아직 어리기는 했으나 총명해서 큰 인물이 될 사람같이 보였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그에게 주려고 했으나 이유도 없이 남의 재산을 왜 받느냐며 끝내 받아주질 않았다. 할 수 없이 강씨는 전 재산을 그에게 전해준다는 편지를 남기고는 그 동네를 떠나 사라져 버렸다. 이 간은 어처구니 없이 큰 재산을 얻어 영암덕에서 자랐다. 이간은 성년이 되면서 벼슬을 얻었고 벼슬은 날로 높아만 가고 당시의 유명한 학자가 되었다. 이 간은 왕의 스승으로써 그때까지 없었던 국장이나 장사치르는 법 등의 "상재"를 만들어나가는 업적을 남겼다. 이 가의 호는 외암이었고 시호는 문정공이었으며 그분이 돌아가시자 영암덕에는 한양에서 내려온 고관대작들이 줄을 이어 조의를 표하고 절을 했다. 그것이 그가 얼마나 충신이었고 훌륭한 학자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그 뒤로 이름도 없었던 이 동네의 이름을 그의 호에 따라 외암리라 지어 그분의 높은 공적을 찬양하였다 한다. 그 어른의 무덤은 지금도 삼신당에 묘비와 함께 자리받고 있으며 이 동네에는 외암이씨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다. 이상은 바로 "아산군 송악면 외암리 1구"에 얽힌 유래이다.

[23] 장 군 바 위

이조중엽 송악면 동화리 라는 곳에 이진사라는 사람이 살았다. 이진사는 동네에서 덕성있고 가문도 좋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분이였다. 그의 부인과 며느리와 출생한지 얼마 안된 손자와 살고 있었다. 그러나 이 진사에게는 불행한 일이었다. 잠을 자다가도 아들 생각에 한숨을 내쉬는 것이였다. 그 이유인즉 워낙 그의 아들은 나이가 18세에 이르러도 대여섯살 먹은 어린애짓만 하는 철부지여서 결혼을 시켜주면 철이 들가하여 이 진사내외의 색시물은 동화리에서 시오리 떨어진 수곡 동네에 사는 감침지의 말딸과 정혼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철이 들기는커녕 더 난폭해지기만 했다. 처음 몇 달은 그렇게 좋아 하더니만 어리석은 그는 금방 아내를 미워하게 되었다. 얼굴도 예쁘지 않고 못생긴 색시와 결혼을 시켜줬다하여 날이면 날마다 술주정이 심하고 심지어는 색시를 몽둥이로 때려서 반죽을

을 시키기도 했었다. 점점 배가 불러오는 며느리가 거의 날마다 저렇게 몸을 혹사 당하다가 큰일나겠다 생각하여 아들 몰래 며느리를 친정으로 몸을 피신시켰다. 부모의 충고는 아랑곳 하지 않고 날이 갈수록 난폭해 지자 마침내 이 진사 내외는 장차의 앞날에 걱정돼 몸져 누고 말았다. 색시가 사라져 버리자 그의 아들은 잠잠해져 매일매일을 낮잠으로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 그런데 너털무렵 잠간 꿈을 꾸게 되었다. 꿈속에서 그의 색시가 조그만 애기를 안고 울고 있었다. 갑자기 색시가 보고 싶었다. 그의 아들은 벌떡 일어나더니 집밖으로 쏘살같이 달려 나갔다. 색시를 찾으러 간다고 나간 것이다. 나가는 것을 아무도 보질 못했다. 집에서야 단이 났다. 저녁때까지만 하여도 마루에 누워 낮잠을 자던 아들이 없어졌다고 하여 밤새 잠을 못 이루었다. 그의 아들은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길을 색시를 데리고 와야겠다는 생각에 어려운 줄도 모른채 계속 발을 내대었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어느 연못 앞에서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이럴 수가 있을까? 지금 그가 앉아 있는 곳은 동네에서 멀리 바라다 보이는 산봉우리에 있는 바위가 있는 곳이었다. 그는 이제까지 힘들어 온 길이 여기였다는 생각엔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런데 그 연못에서 좀 높은 곳에 있는 바위에 흰 수영에 메뭇을 입고 목도를 하는 노인이 있었다. 그는 이런 광경에는 대수롭지 않은 듯 다시 내려가는데 그 노인이 흰 수영을 날리며 그에게로 다가오는 것이었다. "여보게 젊은이, 어디를 갈려하나? 내가 자네를 부른 것일세, 미안하이 이런 방법으로 자네를 불러와서" 노인은 계속했다. "지금은 평화스런 저 동네가 일년 후엔 큰 도적데가 쳐들어 올 걸세" 그 노인은 자기의도술과 무예를 물려줄 후계자로 진사 아들로 도술로서 꿈까지 꾸게하여 오게 한 것이었다. 이런말을 듣고 그는 그 노인에게 절을 하였다. 진사 아들은 한마디 대꾸도 않고 무술을 익히겠노라고 노인에게 말했다. 당장에 실천에 옮겨 그 날부터 그의 기세는 산을 울리고 함성은 메아리치기 시작했으며 하나하나 무예를 익히기에 이르렀다. 그 사이 집에서는 며느리가 친정에서 출산을 해서 시가에 시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 아들이 나간뒤로 가세는 점점 기울어져 며느리느이 날품팔이로 생계를 이어갈 정도로 빈곤한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한 상태, 그 이진사에게는 손자녀석이 주는 위안은 대단한 것이었다. 이진사의 부인은 새벽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를 드렸다. 아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했 일 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다. 그 희수영의 노인은 저녁에 도술을 끝낸 뒤 이진사 아들에게 말했다. "내일은 자네가 지금까지 익혀온 도술을 필요호 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할 날일세" 드디어 날은 밝았다. 희수영의 노인은 진사 아들을 불러 "오늘 잘 싸워주게"하며 점차 몸이 사라져 갔다. 진사의 아들이 동네에 다다랐을 때 도적떼들은 동네를 벌집 쑤셔놓은 듯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 동네에 다다랐을 때 도적떼들은 동네를 벌집 쑤셔놓은 듯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있어싸. 때는 이때다하여 진사아들은 도적떼들과 격투가 시작고디었다. 도적떼들은 오십여명에 1명과 싸우니 상대가 안됐으나 그러나 그동안 피땀흘린 수련 덕분에 모두 물리칠 수가 있었다. 격투가 끝나고 기진맥진해 집으로 말을 몰았다. 집에 도착했을때 부모님을 쓰러져 있었다. 어느 부인의 가슴에 한 아기가 울고 있었다. 생각해 보니 이 부인은 옛날 자기가 그렇게 학대했었던 처였고 울고 있는 아기는 자기의 아들이라는 생각이 스쳤다. 그는 부모의 시체와 부인의 세체를 뒷산에 간단히 장례를 마치고 울고 있는 아기를 안고 말에 오랏싸다. 그는 아기를 데리고 말을 타고 단숨에 그 바위에 올랐다. 그는 마지막으로 피비린내 나는동네를 뒤돌아보며 아기를 안은채 눈물을 흘리며 서서 지난날을 후회하였다. 그 자리가 지금도 남아 있다. 장군바위라 부른다. 그후 그는 산속 깊이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 무예와 소술을 연마하여 일생을 고독하게 마쳤다 한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아버지가 죽은 뒤 세상에 나와 정의를 사랑하며 백성을 보살피고 살았다 한다. 그가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이 전설은 이렇게 슬프게 끝나질 않았어도 됐을텐데.... 이 진사의 아들이 일생이 너무 가엾다. 비록 철은 늦게 들었으나 훌륭한 일을 마치고 고독하게 살다간 그의 일생은 너무 외로웠지만 그래도 훌륭한 일대기를 남기신 그분이 있었기에 오늘도 이지역 주민들은 그부의 정기를 받아 모두 정하고 근면한 협동으로써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24] 장 수 바 위

민속보존 지역인 우리마을은 옛날 역이었던 장터로부터 한 20분 가량 떨어져 있다. 일제시대 왜놈들이 설화산 꼭대기에 있는 금광르 캐기 위해 다리가 놓여져 있기도 하다. 우리마을은 옛날부터 양반마을이라 불리워지기도 했다. 참판까지 지내신 분도 계셨다고 한다. 가끔 우리 마을이 TV에도 나온다. 마을입구에도 한참 올라가면 장수바위가 있다. 거대한 거인의 발자국이 바위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고 전해진다. 옛날 조선시대에 한

거인같이 큰 총각이 살고 있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좀 덜된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몸집이 비해 성격이 온수하고 일도 잘해서 마을 사람들이 식량을 나눠주고 일을 시키고 했다.

이 마을에는 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가 살고 있었는데 자기의 농사보다 평민들이 지은 곡식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이것은 다 그 거인같은 녀석 때무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주는 그 총각을 불러 음식을 배불리 먹은 후 저녁때가 다 되었을 때 깊은 산속에 있는 절에 쌀을 좀 갔다 주라고 시켰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산속에는 무서운 산짐승들이 많을 때였다. 그러나 그 총각은 순순히 허락했다. 울퉁불퉁한 험한 산길을 깜깜한 밤중에 그것도 산짐승이 날뛰는 곳을 가리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날밤 마을 사람들은 요사스런 여우의 울음소리를 들어싼. 며칠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그총각을 찾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산속을 뒤졌다. 한참을 찾아보니 총각의 자취는 간곳 없고 그의 신발만이 나뉘굴고 있었으며 그옆에 큰 바위에 그 총각의 발자국이 커다랗게 새겨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를 마을에 옮겨다 놓고 제사를 후하게 치러 주어싼. 마을 사람들 말로는 그 총각이 색시로변한 여우에게 호려서 온 산을 해매다가 죽었을 것이라고 믿었다. 어쨌든 그 총각의 발자국은 몇년이 지난후 임지왜란시 왜놈들이 이 마을을 침략했다가 그 발자국을 보고 놀라 달아났다고 전해진다. 지금에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북한 괴도들도 벌벌 떨련만.....